

어떻게 그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 수원시립미술관 기획전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관람기

푸우씨 상임활동가

직관적인 것을 좋아하는 내게, 작품에 대한 해석을 많은 부분 관람자에게 맡기는 미술 관람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번에 관람하게 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전시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쉽지 않았다. 다만, 기획 의도를 상세히 담은 팸플릿과 [Can't Help but Love Her]라는 영문 전시 부제가 이를 보충해 준다. '어떻게 그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원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는 작가 8명의 작품을 통해 여성들의 일과 노동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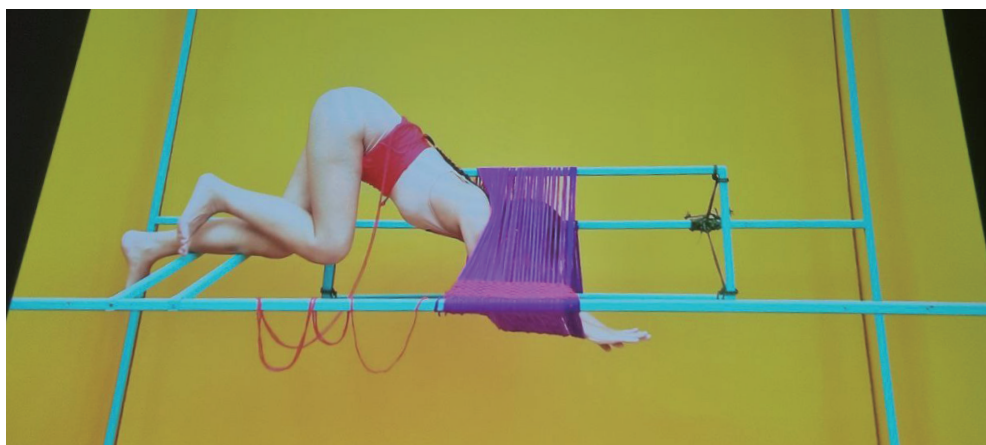
언제나 있었던 그녀들의 노동

여성들은 일해왔다. 과거든 현재든, 유급이든 무급이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 여성들이 사회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부당하게 이용당하거나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전시 팸플릿 중>

그렇다. 인류의 기원부터 여성들은 일하며 존재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은 늘 주변부의 노동,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되었다. 작품들은 이런 우리 사회(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여성의 노동에 대한 견고한 인식에 틈을 내고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적으로 돌봄이라는 사회적 필요를 여성의 노동으로 손쉽게 치환해 왔던 서울시가 더 값싼 노동상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고 이주 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일까. 회화,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은 유독 강렬한 색채에 기반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고단함

전시장 한편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흐르는 영상이 발걸음을 땔 수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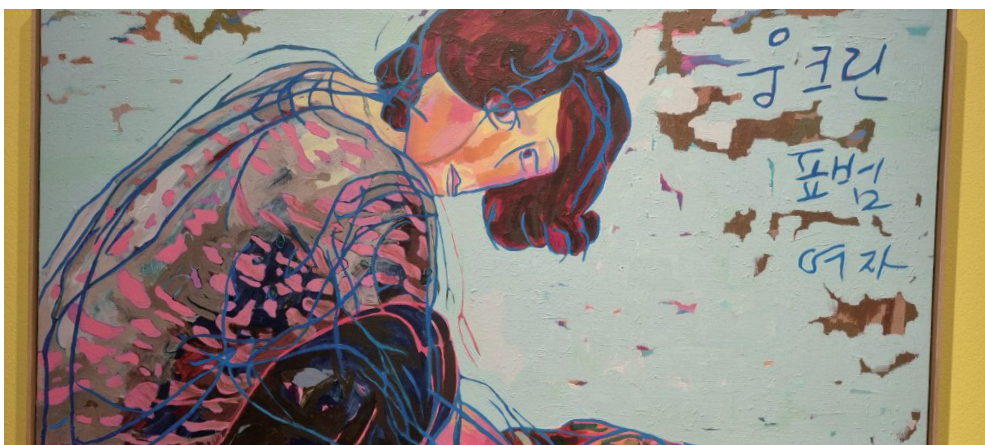
▲ 카위타 바타나안쿠르 작가의 퍼포먼스 작품, 서울. 사진 : 손진우

샛노란 배경 속 구조물 안에서 분주히 자기 몸을 움직이는 작가 카위타 바타나안쿠르의 비디오 퍼포먼스는 그 옆에 크기를 달리해 배치된 새빨간 배경의 영상 등과 어우러져 섬뜩함마저 전한다. 기계체조를 하듯 허공에서 몸을 돌려가며 실을 감고, 구조물 사이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동작을 반복하며 실을 찾고, 거꾸로 매달려 색소가 담긴 커다란 대야에 머리에 뒤집어쓴 가발을 담갔다 뺐다 반복하는 그녀의 몸짓은 방적과 방직, 염색 노동을 하는 아시아 여성들의 극한 노동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의 벽면에는 다양한 남녀 커플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일견 촌스러운 듯하면서도 짙은 색감을 가진 사진들은 강용석 작가의 <동두천 기념사진>이라는 작품이다. 동두천에서 근무한 미군들이 기지촌 접객원들과 한국에서의 일상을 기념하기 위해 남긴 사진들이다. 얼핏 연인과의 일상을 기록한 듯 보이지만, 한 발 앞으로 다가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내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미군 남성들과 달리 카메라와의 시선을 피하거나, 지친 표정과 건조한 눈빛의 그녀들이 보인다. 사진을 담은 1984년 당시 강대국 미국과 약소국 한국의 관계, 성구매자와 성 판매자의 관계가 대조적인 모습으로 극명히 전달된다.

위로와 연대

저마다의 주제를 담은 전시작들은 여성의 노동 현실뿐 아니라, 여성의 주체성, 위로와 공감, 연대를 표현하고 있다. 전시작 중 신 라이프치히 화파(전통적인 순수 회화의 전통을 불러왔다고 이야기되는)의 대표적인 독일 화가 로사 로이의 몽환적인 분위기의 그림들이 그렇다. 로사 로이는 작품에서 주로,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 있는 여성을 묘사하는데, 이전 인터뷰에서 그녀는, “여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지, 어



▲ 방정아 작가, 웅크린 표범여자. 사진 : 손진우

떤 것을 베푸는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신>, <겨울철을 위한 포장>, <밤이 오기 전에>라는 그녀의 그림 3점에서, 특히 놀란 것은 모두 2022년의 최신작이라는 점이다. 특유의 기법 때문에 오래 전에 그려진 그림처럼 보인다. 그녀가 사용하는 물감이나, 우유의 주요한 단백질 성분을 재료로 한 카제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카제인은 프레스코화(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회반죽 벽에 그려진 벽화)에 주로 사용되다가 페인팅 재료의 발달로 쓰임이 덜해진 재료인데, 그녀가 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카제인이라는 재료를 통해 더 잘 전달된다고 느껴졌다.

이와 함께 방정아 작가의 회화 작품들 또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한다. <웅크린 표범 여자>는 무언가를 하고 있던 여성이 다가온 사람에게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순간을 담았다. 낯선 이가 자신의 일상에 침투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아’라고 경고하듯 그림 속 눈빛이 날카롭다. 또 다른 작품 <집 나온 여자>는 언뜻 풍자적 일상을 표현한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시퍼렇게 한쪽 눈두덩이가 부어오른 여인이 아이를 업은 채 허겁지겁 오뎅을 삼키고 있다. 회화 <아무 말 하지 않아서 좋았어>는 해안가 산책로에 기대앉은 3명의 여성들이 무심히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굳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와 공감, 연대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그녀들에게 찬사를

종료되어 아쉬운 이번 기획 전시의 ‘여성의 일을 향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촉발하는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변저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해 일해 온 그녀들에게 우리 사회가 존중과 감사, 연대의 찬사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알터**